

KIA 김도영 “8월 순위 싸움 선봉에 서겠다”

햄스트링 부상 후 2개월여만에 1군 복귀…자신감 드러내

이틀 연속 우천 취소에 한화 문동주와 대결은 다음 기회로



KIA 타이거즈의 김도영이 ‘김도영답게’ 8월 순위 싸움의 선봉에 선다.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으로 긴 재활의 시간을 보냈던 김도영이 지난 2일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 앞서 엔트리에 복귀했다. 아쉽게도 2일에 이어 3일 경기가 연달아 우천으로 취소되면서 부상 복귀전은 미뤄졌지만 김도영은 자신감과 기대감으로 그라운드에 오를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완벽한 몸”을 목표로 준비를 잘한 만큼 자신감은 넘친다. 3월 22일 NC와의 시즌 개막전에서 왼쪽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던 김도영은 지난 5월 27일 키움전에서 다시 한번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는 오른쪽 햄스트링에 이상이 생겼다.

KIA는 당장의 순위 싸움보다는 완벽한 복귀가 우선이라는 판단 아래 둘다리로 두드리면서 신중하게 김도영의 복귀를 준비시켰다. 김도영은 “이번에는 기간이 길다 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했던 것 같다. ‘빨리 복귀해야 한다’는 조급함 없이 몸을 잘 만들고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완벽한 몸을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실전 준비 기간은 예정보다 단축됐다. 1일 목포과 학기술대와의 연습경기에서 3타석을 소화했던 김도영은 2일에도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을 소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KIA는 2일 김도영을 바로 엔트리에 등록시켰다.

김도영은 “갑은 시합 나가서 해봐야 할 것 같지만 좋다는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다. 시합 들어가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타이밍 문제 등을 잡을 수 있다”며 “시합을 몇 경기 하고 오느냐는 자신감 문제인 것 같다. 굳이 실전을 더 안 하고 와도 자신 있게 하면 자신감이 생긴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무엇보다 지난해 풀타임을 뛰면서 리그 MVP에 등극하는 등 확실한 ‘김도영의 것’이 생긴 만큼 그에 대한 자신감도 있다.

김도영은 “데뷔 초에는 여유도 없다 보니까 오래 쉬다 보면 그만큼 (실전) 훈련을 하고 와야 한다는 게 강했었다. 올해 초 다쳤을 때 훈련 조금 하고 왔는데 감도 나쁘지 않았고 결과도 나쁘지 않아서 확실히 1군에서 뛰다 보니까 몸이 적응한다고 느꼈다”며 “(지난해) 1년 쪽 잘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우연은 아니니까 나만의 것이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올 시즌 팀을 위해 한 루라도 더 가기 위해 달리가 연달아 부상을 당했지만 후회는 없다. 앞으로도 김도영은 자신 있게 자신의 야구를 할 생각이다.

김도영은 “중요한 상황에서 뛰었다. 플레이에 대한 후회는 없다. 솔직히 반성은 해야 한다. 그만큼 빠진 것에 대한 것은 반성해야 한다”며 “선수들한테 너무 죄송했다. 이제는 이렇게 길게 빠지면 안 되는 선수다. 복귀해서 팀에 보탬이 돼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아직 그라운드에서 팬들을 만나지 못한 만큼 김도영은 이틀 연속 광주에 내린 비가 야속하다. 만약 3일 경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더라면 한화 선발 문동주와의 흥미로운 맞대결도 예정됐던 만큼 팬들의 아쉬움도 컸다.

전날 김도영의 대타 기용을 예고했던 이범호 감독은 3일에는 스타팅 라인업에 김도영의 이름을 적었다. 이범호 감독은 이날 수비까지 소화하게 할 계획이었다.

김도영은 “라인업을 확인했었다. 동주랑 잠깐 만나기도 했는데 경기를 못해서 아쉽다. 팬분들이 많이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 기다려주셨던 만큼 앞으로 최대한 부상으로 안 빠지게 노력할 테니 많은 응원 보내주시면 좋겠다”며 “자신 있다. 아직 팀 순위 싸움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8월 욕심을 내봐야 할 것 같다”고 좋은 플레이로 부상 공백을 지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햄스트링 부상에서 벗어난 KIA 김도영이 지난 2일 엔트리에 재등록됐다. 2·3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예정됐던 한화와의 홈경기가 비로 취소되면서 김도영의 부상 복귀전과 한화 문동주와의 ‘문김대전’은 무산됐다.

〈KIA 타이거즈 제공〉

상승세 타이거즈 “비가 야속해”

네일·올러 앞세워서 한화전 연승 노렸지만 무산

내일부터 롯데-NC-삼성-두산 등 원정 12연전

‘호랑이 군단’이 아쉬움에 하늘만 올려봤다. 2일 비로 하루를 쉬었던 KIA 타이거즈가 3일에도 폭우가 쏟아지면서 한화 이글스와의 홈경기를 치르지 못했다. KIA 입장에서는 분위기를 식힌 야속한 비가 됐다.

KIA는 지난 1일 경기에서 1위 한화를 상대로 극적인 승리를 장식했다.

마무리 정해영의 휴식일이었던 이날 KIA는 3-2로 앞선 9회초 ‘이적생’ 한재승을 투입했다. 한재승이 노시환을 4구째 헛스윙 삼진, 채은성을 유격수 땅볼로 잡으면서 투아웃. 안치홍과 7구 승부 끝에 좌전안타는 맞았지만, 대주자 이상

혁을 견제사로 잡아냈다.

원심은 세이프였지만 이범호 감독의 요청으로 비디오판독이 진행됐고, 아웃으로 판정이 번복되면서 경기가 KIA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두산전 충격의 2-2 무승부 뒤, 7일 마지막 경기에서 3-2 승리를 거두고 연패에서 탈출했던 KIA는 분위기를 이어 한화를 상대로 연승을 만들었다.

상승세를 탄 KIA는 제임스 네일과 아담 올러를 연달아 선발로 준비시켰던 만큼 앞선 한화전 스윙패를 설득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 같았다. 여기에 김도영도 부상을 털어내고 2일 엔트

리에 등록됐던 만큼 기대감으로 경기를 준비했지만 비가 KIA의 발목을 잡았다. 김도영과 올러의 부상 복귀전도 무산됐다.

이틀 연속 비로 쉬어간 KIA는 선발 로테이션을 재조정하고 원정 12연전길에 오른다. KIA는 5일 롯데와의 대결을 시작으로 NC-삼성-두산과 원정 경기를 이어간다.

이범호 감독은 네일을 시작으로 올라-양형중-김도현-이의리로 경기를 풀어갈 예정이다.

이범호 감독은 “네일과 올러 다음에 비슷한 유형의 김도현이 들어가면 상대 입장에서는 수월할 수 있어서 좌투수로 하고 다음 팀 경기로 넘어가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이의리도 최대한 뒤로 밀어놓으면 두 번 던지는 타이 늦어지게 된다”고 선발로테이션을 설명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후반 추가시간 극적 무승부…전남, 3위 복귀

K리그2 23라운드 총남과 2-2

전남드래곤즈가 홈에서 승점을 더하면서 3위 자리에 복귀했다.

전남드래곤즈는 지난 2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5 23라운드 총남아산FC와의 홈경기에서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10승 9무 4패(승점39)가 된 전남은 이날 성남전에서 2-3 패배를 기록한 부천FC(11승 5무 7패·승점 38)에 앞서 3위에 올랐다.

전반전은 답답한 흐름으로 전개됐다.

전남이 두 차례 슈팅을 시도하는 데 그쳤고, 총남아산도 3개의 슈팅만 기록했다. 이마저도 유효슈팅으로 기록되지 않는 헛심 공방 속에 0-0으로 전반전이 끝났다.

두 팀은 흐름을 바꾸기 위해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카드를 사용했다.

전남 김현식 감독이 정강민을 불러들이고 르본을 투입했다. 총남아산 배성재 감독도 송승민과 박종민을 대신해 한교원과 백인환을 투입하면서 후반전 공세에 나섰다.

전남은 후반 7분에 다시 한번 변화를 시도했다. 호난을 빼고 정지용을 그라운드에 올린 김현식 감독은 발디비아를 제로톱으로 배치해 포메이션에 변화를 줬다.

후반 32분에는 김예성, 최한솔을 대신해 민준영, 박상준(U22)으로 교체하면서 기싸움을 이어갔다.

그리고 후반 33분 상대 한교원의 골을 시작으로 잠잠하던 두 팀의 화력이 폭발했다.

전남이 선제골을 내렸지만 후반 35분 이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왼쪽에서 민준영이 크로스를 올렸고, 문전에서 뛰어오른 발디비아가 헤더를 선보이면서 골망을 흔들었다.

5분 뒤 이번에는 전남의 골대가 열렸다. 총남아



전남드래곤즈의 발디비아가 지난 2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총남아산FC와의 경기에서 슈팅을 시도하고 있다.

〈전남드래곤즈 제공〉

산의 정마호가 코너킥 상황에서 오른쪽 슈팅을 날리면서 리드를 가져갔다.

전남이 그대로 승리를 내주지 않았다. 후반 추가시간, 이번에는 전남이 코너킥 상황을 놓치지 않았다.

발디비아가 코너킥 상황에서 키퍼로 나서 공을 올렸다. 골대 바로 앞에 있던 정지용이 머리로 공의

방향을 바꾸면서 골망을 흔들었다.

전남은 이후 남은 추가 시간을 실점 없이 지키면서 승점 1점을 더했다.

한편 3위 탈환에 성공한 전남은 오는 10일 오후 7시 천안시FC와의 홈경기에서 승리 사냥에 나선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늦게 핀’ 배소현 KLPGA 시즌 첫 승

오로라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우승상금 1억8천만원

배소현(32·사진)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오로라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10억원)에서 우승했다.

배소현은 3일 강원도 원주시 오로라골프&리조트(파72·6509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5개를 몰아치고 5언더파 67타를 기록했다.

최종 합계 19언더파 269타의 성적을 낸 배소현은 공동 2위 선수들을 1타 차로 제치고 올해 신설된 대회 초대 챔피언이 됐다. 우승 상금은 1억8000만원이다.

지난해 3승을 거둔 배소현은 올해 첫 승을 따내며 통산 승수를 4승으로 늘렸다. 지난해 9월 제13회 KG레이디스오픈 이후 11개월 만의 우승이다.

올해 KLPGA 투어에서 30대 나이 선수가 우승한 것은 1993년생인 배소현이 처음이다.

최근 KLPGA 투어 30대 챔피언도 지난해 9월 KG레이디스오픈의 배소현이었다.

3라운드까지 선두에 1타 뒤진 공동 2위였던 배소현은 7, 8번 홀 연속 버디로 3라운드 1위 고지원을 제쳤고, 이후 성유진과 선두 경쟁을 벌이다가 14, 15번 홀에서 연속 버디를 낚아 2타 차 선두로 올라섰다.

성유진은 2타 차 2위였던 16번 홀(파4)에서 약 2m 버디 기회가 있었으나 이를 살리지 못한 장면이 아쉬웠다.

이어진 17번 홀(파3)에서 배소현의 티샷이 그린 오른쪽 러프 경사면에 떨어진 반면, 성유진은 다시 홀 2m 거리로 보내며 추격 기회가 찾아왔다.

성유진이 먼저 버디 퍼트를 넣고, 배소현은 파를 지켜 1타 차로 좁혀진 가운데 마지막 18번 홀(파4)에 들어갔다.



18번 홀에서 성유진의 6.5m 정도 버디 퍼트는 빛나갔지만, 선두와 2타 차였던 고지원이 버디를 잡아내며 성유진과 함께 배소현을 1타 차로 압박했다.

그러나 배소현이 2m가 조금 안 되는 파 퍼트를 침착하게 넣으면서 1타 차 우승을 지켜냈다.

배소현은 TV 중계 인터뷰에서 “기다려온 시즌 첫 승을 하게 돼 기쁘다”며 “어제 짧은 퍼트를 놓친 덕분에 오늘 마지막 홀 파 퍼트도 실수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성유진과 고지원이 나란히 18언더파 270타, 공동 2위에 올랐다.

시즌 상금과 대상 포인트 선두인 이예원은 15언더파 273타, 박지영, 노승희와 함께 공동 5위로 대회를 마쳤다.

준우승한 고지원의 언니 고지우는 13언더파 275타를 기록하며 공동 10위로 대회를 끝내 자매가 나란히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KLPGA 투어는 이 대회를 끝으로 올해 상반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7월 제주도에서 개막하는 제12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로 하반기를 시작한다.

/연합뉴스